

2023년 10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10/01	[뉴스포커스] 북, 김정은 방러 결과 보고... "건설적 조치 실행" [뉴스10] 러 외무장관 "다음달 평양 방문"... 북러회담 후속 조치	
안지연	10/08	[뉴스18] 명절 열차표 비대면 예매... 노령층 "난감하네" [토요와이드] "지갑 필요 없어요"... 휴대전화 간편결제 '대세'	
박세진	10/15	[뉴스23]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대적 공세... 이스라엘 "전쟁상황" [뉴스10] 이스라엘·가자 사망자 1,500명 육박... "인질 150명"	
임윤주	10/22	[뉴스18] 안갯속' 선거제 개편... 제3지대 '거대 양당 틈새' 찾을까 [뉴스17] "학교 그만두고 수능 볼래요"... 작년 2만3천명 고교 자퇴	
김홍태	10/29	[뉴스17] 대법 "공포 느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 처벌범위 확대 [뉴스워치]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 경찰 수사현장 투입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10/1(일)	박세진	<p>9월 23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이준삼 연합 뉴스 기자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미 당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강대국 북한 국방상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고,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전했습니다.</p> <p>한편 유엔 총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노골적인 유엔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등으로 유엔 차원의 대응을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직접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된다는 세계 핵물리학자 헤커 박사의 주장을 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연합뉴스TV에서 두 국가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았다는 점은 관련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보는 과정이 없었던 점은</p>	<p>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장 진행되는 급박한 현안과 소식을 전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말씀하신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눈길이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p>

		<p>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강한 어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를 비판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밀착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의 행보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된다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본다면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이슈를 이해하고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p>	
2023 10/8(일)	안지연	<p>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차역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막연히 매표 창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달 28일 오후 6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고령의 승객들이 비대면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명절 기차표 예매가 모두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전환된 탓에 뒤늦게 매표 창구를 찾게 된다는 것인데, 고령의 승객들은 온라인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사용법이 익숙지 않고, 전화 예매도 원활하지 않아 창구 앞에 서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비대면 예매 경험이 있는 노인 60% 이상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는 공공에서 비대면 예매를 도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대면 창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프라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매우</p>	<p>감사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느끼는 디지털 격차는 열차표 예매 창구는 물론 식당, 휴대전화 사용, 도서관 이용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배려하면서 디지털 전환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루고자 합니다. 적절한 때에 기획 시리즈(매주 토요일 방영하는 프리즘) 아이템으로도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p>

		<p>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노년층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디지털 전환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과거 스마트폰과 PC 등에만 집중되어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키오스크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예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디지털 격차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2023 10/15(일)	박세진	<p><일요와이드>에서는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 교수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는 이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무장 대원들의 포로 교환을 이끌어내려는 하마스의 의도가 또 하나의 공격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스라엘이 최근 이집트, 시리아 등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우리나라에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단순한 전황 보도를 넘어 다각도로 관련 이슈를 분석해 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군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p>	<p>이스라엘 관련 대담은 전쟁 발발 이후 거의 매일 다루다시피 하며 다각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전문가가 주로 출연하다 보니 포커스가 전황과 지역 정세에 맞춰져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군사, 무기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장사정보 공격 가능성을 비롯해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의 리포트나 북한 관련 다른 대담에서 일부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 대담 편성 시 한반도에 미칠 직간접 파장까지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섭외 및 질문 구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p>

		<p>엘의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1만발 이상의 장사 정보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한 공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군사적인 함의에 대해 평가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p>	
2023 10/22(일)	임윤주	<p>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였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자퇴 현황에 대해 보도한 9일 <뉴스 17>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고교 자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3천440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퇴생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년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교 자퇴생 중 1, 2학년 비중이 약 90%에 달했습니다. 보도는,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한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전달하여, 현재의 상황이 현실감 있게 와닿았는데도, 다만, 주목해야 할만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짧게 보도되어, 해당 보도가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p>	<p>말씀하신대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감용 자료를 인용해 단신 처리한 기사입니다. 자료 중 핵심 통계를 언급하며 교육부가 분석한 원인인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도록 한 정책이 자퇴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단신 기사라서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국감 자료 중 중요한 내용들은 리포트 내지 단신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당일은 한글날 휴일 편성이라서 취재 기자들 인력이 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p>

		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과 보도 말미에 언급된 '수능'과 현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력이 아쉬웠습니다.	
2023 10/29(일)	김홍태	지난 18일 뉴스워치에서는 세계 첫 '보이스 피싱 분석 모델'을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한다고 전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해야 했었는데요, 새 음성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 시스템'에 탑재돼,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 모델 도입으로 영장 신청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새 기술이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 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행안부가 평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범죄로 부상하였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 첫 '보이스 피싱 분석 모델'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의 도입은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사관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한 기존의 음성분석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좋은 이러한 소식은 시청자들이 이해	말씀하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서민 피해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신기술 분석 모델을 행안부에서 개발에 경찰 수사 현장에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기자와 상의해 이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기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리포트를 하려고 했으나 행안부에 문의 결과 기술적으로 음성 그래프 이미지(사진) 외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의 리포트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나중에 경찰에서 이 모델을 활용, 범인을 검거하면 그때 기사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1일 행안부에서 이 모델을 이용, 경찰이 3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당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음성을 넣어 해당 음성분석 모델 성과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51명...'음성 분석'으로 검거'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제작했습니다.

		하기 쉽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도되어, 시청자들도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수사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자세하게 보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10. 01 방송) : <바로보는 TV 율무즈멘 618회 -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지속되며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진 러시아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첨단 국방기술 발전이 시급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2차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에 관한 다양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뉴스에서는 북한이 9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귀환 보고를 했으며, 보고 간 김 위원장의 방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분석과 북러 관계 발전 계획들이 소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러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평양을 방문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3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이준삼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미 당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대응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강순남 북한 국방상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고,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노골적인 유엔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등으로 유엔 차원의 대응을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고 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직접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된다는 세계적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의 주장을 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향후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연합뉴스TV에서 두 국가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았다는 점은 관련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분석해보는 과정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강한 어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를 비판하고 있고,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추가적인 밀착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의 행보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된다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본다면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이슈를 이해하고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국가들의 명칭을 호명하는 순서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거론할 때 과거로부터 활용되던 한중일이라는 표현 대신 한일중의 순서로 지칭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를 호명하는 순서 역시 북러에서 러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연합뉴스 TV는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두 국가를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했다고 보도하며, 과거 정부 발표에서는 통상 ‘북러’ 순으로 칭했지만, 이번에 북한을 후순위로 바꿔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순서 자체를 의식한 것은 아니나 민족 공조라고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이며, 윤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일본을 앞세워 발언한 것과 연계해 이러한 변화에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일 외교장관과 뉴욕에서 약식회의를 가졌다고 전하며, 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일 세 나라는 러·북간 군사협력이 논의되는데 우려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고, 박 장관이 이어 참석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공개토의에서도 두 나라간 군사거래의 위법성

을 재차 경고하며, 북러가 아닌 러북으로 호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용어에서 국가별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나라가 앞에 등장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외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호칭 순서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의 영토가 우리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먼저 호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호칭 변화를 추구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연합뉴스TV 보도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도 숙고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는 정부의 호칭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대통령 또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해당 국가들을 호칭하는데 있어 북러, 한중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타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언론계 차원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약 관련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TV는 지난 2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육군이 마약 사범 간부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목적이 건전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년간 마약사범 간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례로 2019년 필로폰 성분이 들어간 최음제를 샀다가 적발된 육군 중사 김모 씨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는데 마약 구입 목적이 범죄가 아닌 부부관계 개선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2020년 9월에는 중사 이모 씨가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기소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군 간부 열세 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여덟 명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가 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마약 매매가 쉬워지면서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약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자체 수사기관을 갖고 있는 경찰 등 다른 정부 조직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속 보도를 통해 타 정부 기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10. 08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19회 -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차역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막연히 매표 창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달 28일 오후 6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고령의 승객들이 비대면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명절 기차표 예매가 모두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전환된 탓에 뒤늦게 매표 창구를 찾게 된다는 것인데요, 고령의 승객들은 온라인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사용법이 익숙지 않고, 전화 예매도 원활하지 않아 창구 앞에 서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비대면 예매 경험이 있는 노인 60% 이상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공공에서 비대면 예매를 도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대면 창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노년층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디지털 전환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과거 스마트폰과 PC 등에만 집중되어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키오스크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예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디지털 격차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간편결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리함이 있는 만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30일 토요일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한 하루 평균 8,451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용건수도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인 2,600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비대면 문화가 퍼지면서 간편결제 이용 가능 영역과 이용 금액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로 지급결제 수단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명의도용 등 부정결제 사고가 증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을 기점으로 3년 만에 5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에도 대비해야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매장들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과 우리 사회에 비접촉,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변화하고 있는 결제 환경을 잘 설명해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간편결제를 하는 모습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용량 및 부정 결제 등의 통계수치를 시각화해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다만, 간편결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전할 때 소비자는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덧붙여주었다면 간편결제 서비스의 장, 단점을 폭 넓게 파악할 수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민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17년 전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를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0.73명,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 상황의 개선이 없을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경우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도 전했는데, 보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저출산 대책이 지속되어왔지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선행 없이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가의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다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과 양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기계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과

거에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는데요, 최근에는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요와이드에서 살펴본 저출산에 대한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해결 방법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보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들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을 짚어주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효과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했다고 평가됩니다.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추워진 날씨 탓에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스1번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주째 독감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독감 의심 환자는 17.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의 두 배가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빠르면 11월 초, 중순에 독감 환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전했는데요,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는 새로운 변이가 겨울이 되면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음을 설명했고 방역당국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하며 WHO와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65세 이상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독감은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접종 비용을 내야한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일교차가 커져 대기가 건조해지는 탓에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는 환절기 독감 환자의 이례적인 급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예방接种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도 말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안내하면서 해당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 여부를 덧붙였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10. 15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2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고, 우리 정부도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공격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한 다양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뉴스에서는 유대교 안식일인 현지시간 7일 새벽,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대규모 로켓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의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이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이라며 포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적은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을 선포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다 보도했습니다.

9일에는 양측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천 오백명을 넘어, 부상자는 6천명을 넘어섰다고 전하며, 가자지구에 붙잡힌 백 오십여 명의 인질의 생사가 불투명해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8일 저녁 뉴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사전에 하마스 공격의 김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최악의 정보 실패'라고 평가했고,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아이언 돔'을 비롯해 수억 달러를 들여 갖춘 방어막도 뚫린 것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방위시스템 또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요와이드>에서는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 교수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는 이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무장 대원들의 포로 교환을 이끌어내려는 하마스의 의도가 또 하나의 공격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스라엘이 최근 이집트, 시리아 등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우리나라에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단순한 전황보도를 넘어 다각도로 관련 이슈를 분석해 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군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방어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북한

의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1만발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한 공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군사적인 함의에 대해 평가해 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옥 선교사를 비롯해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 TV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총 여섯 명으로 이들 중 가장 먼저 억류된 사람은 지난 2013년 평양에서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김정옥 선교사라고 전하며, 통일부가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을 맞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014년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 취득 후 2016년 억류된 북한이탈주민 세 명의 생사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통일부가 지난달 신설된 장관 직속 남북자대책팀을 중심으로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억류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송환 노력은 주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특히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의 호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억류 국민의 송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남북관계가 좋았던 지난 2018년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여섯 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당시 보다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후속 보도를 통해 이번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실효성과 억류자 송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열 여덟번째 장관급 인

사로 알려졌는데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이유는 두 부처 모두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함께 전하며, 특히 국방장관의 경우 임명이 늦어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장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통령의 임명 보도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장관이 해당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 갈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보도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당의 지지 발언과 야당의 비판 발언이었습니다. 장관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내세운 임명안 재가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현 장관의 임기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감사를 위해, 그리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보다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포함해 장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10. 22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2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남은 것인데요. 총선 180일 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공식 개시하는 시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합뉴스TV에서 짚어보았습니다. 9일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선거제 협상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 수와 배분 방식입니다. 해당 쟁점은 약 4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순간에서 촉발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합의 없이 처리되어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소

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벌어지며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군소·소수 정당 등 제3지대 확장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선거제 손질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틀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으로, 선거제 개편 현황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내용 대부분이 또 다른 보도로 구성해도 될 만큼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정된 시간 내 쟁점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설명이나, 지난 선거 당시 결과적으로 양당 쏠림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연합뉴스TV가 향후 선거 전까지 다룰 다양한 보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비례대표제 관련 쟁점 외에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제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여유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합뉴스TV는 선거 1년 전인 올해 초부터 선거제 관련 뉴스를 지속 보도하며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였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자퇴 현황에 대해 보도한 9일 <뉴스 17>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고교 자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3천440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퇴생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년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교 자퇴생 중 1, 2학년 비중이 약 90%에 달했습니다.

보도는,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한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전달하여, 현재의 상황이 현실감 있게 와닿았는데요.

다만, 주목해야 할만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짧게 보도되어, 해당 보도가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드라인과 보도 말미에 언급된 '수능'과 현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력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직장 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10일, 16일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부정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1.5%, 정규직이 34.8%였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는 10명 중 4명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6일자 보도에서는 먼저 살펴본 보도와 동일한 설문 조사 결과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36%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1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자의 27%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보도는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요,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는 보도로 구성하였어도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도의 주요 내용은 직장인의 육아휴직과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업종별이나 연령별, 고용 형태별로의 응답 수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보도에서 인용된 고용 형태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부정 답변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보도는 말 그대로 여론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의 명확성이 중요한데요. 자료 화면의 자막을 통해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출처를 기재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16일 <뉴스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본 보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앵커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 대담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대담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약 3천 명으로, 증원이 된다면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증원인데요. 증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천 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오간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 감소 등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였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를 언급하며 의사 수요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의사가 약 1만4천여명, 2035년에는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국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역시 논의해볼 지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을 훨씬 넘습니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반발 의견,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대생들이 의사로 성장하는 동안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향후 절차와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 지역 간 불균형 등 본 보도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당 의사 수, 지역별 의대 정원 등 언급되는 내용 대부분이 명확한 출처와 함께 수치로 전달되었고, 지역별 비교나 국제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치 뿐 아니라 사례들도 다양하게, 그리고 적절한 부분에 활용되어 시청자들이 해당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10. 2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22회 -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이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되었다면서, 새 음성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인 점포가 늘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등장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 확산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설탕 가격이 1년 전보다 35%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20일 뉴스17 소식인데요, 가벼운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

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갑자기 집을 찾아가는 단순한 행위라도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부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데요, 그 후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전처와 자녀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차는 등 위협을 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A씨는 단순히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 등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항소했는데요, 2심 역시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가 초기에 스토킹을 막아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살인이나 상해 같은 '침해범'이 아닌, 법익에 대한 위협을 일으키기만 해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2심 논리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했는데요, 정은영 대법원 공보판사는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누적돼,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불안감·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큰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그의 행위는 전처와 자녀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그의 행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행위의 연속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행위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최초의 판결로써,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의 판단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됩니다.

위 보도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면서, 시청자들에게 대법원의 스토킹 범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난 18일 뉴스위치에서는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을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한다고 전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야 했었는데요, 새 음성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 모델 도입으로 영장신청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새 기술이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 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행안부가 평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범죄로 부상하였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의 도입은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사관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입한 기존의 음성분석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좋은 이러한 소식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도되어, 시청자들도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수사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자세하게 보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뉴스위치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무인 점포가 늘고 있지만, 손님이 물건값을 직접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등장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 확산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초코바를 가방에 집어 넣고 나왔는데도 게이트를 빠져나오니 바로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데요, 최근 문을 연 한 편의점에 계산대도 직원도 보이지 않지만, 대신 천장에 달린 60여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진열대에 있는 센서가 무게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한적인 고객을 상대로 테스트한 곳은 있었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완전 개방형 무인 편의점은 처음이라고 전하며, 고객들은 직접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1+1 행사도 자동 반영되고, 고객이 놓고 간 증정품은 앱에 저장해 준다고 합니다.

왕민권 매장 자동화업체 COO는 3D 카메라가 아니라 저렴한 2D 카메라를 가지고, 고

객 추적과 물품 탐지를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했으며 1~2년 내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초기 시설 비용이 문제였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설치 비용 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교환이나 환불이 번거롭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 등 개선할 점은 있다는데요, 편의점 업체는 이 매장 운영으로 테스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스마트 편의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완전 개방형 무인 편의점은 현실에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고객들은 매우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고 인력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잡고 있습니다.

이번 무인 편의점의 등장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번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감소의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상점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간단하게라도 짚어야만 좀 더 균형잡힌 보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뉴스센터 13에서는 국제 설탕 가격이 1년 전보다 35% 오르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의 설탕가격 상승은 인도에서 설탕 수출 할당 물량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태국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설탕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톤당 727달러로 1년 전보다 35%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76.4%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제당업체들이 이미 국제가격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했고, 약 4~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5%나 상승한 설탕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설탕은 많은 식품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4~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안도의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위 보도는 세계 경제의 미세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국제 설탕 가격은 잘못 대응하면 그나마 고물가인 현재 경제상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크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출발600에서는 이번 주가 '한복문화주간'이라고 전하며,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복 나들이를 떠나보자고 권하는데요, 7080 추억의 거리가 조성된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시민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 감탄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난 22일까지를 '2023 한복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복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고, 개화기 한복 전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한 관광객들도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선선한 가을, 오색 단풍과 함께 한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복,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옷. 지난 20일 '출발600'에서는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행사 소식을 전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한복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복 축제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가을, 오색 단풍과 함께 한복의 멋을 즐길 축제였으리라 다짐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3년 10월 1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10월 8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10월 15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10월 2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10월 29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